

美 교회들, 생존이 아닌 '선교를 위해' 합병한다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합병 전보다 교인수 14% 늘기도

미국 교회들 사이에서 흔히들 이뤄져 온 합병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생존'을 위해 합병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큰 '선교의 기회'를 위해서로 합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크리스챤리티투데이는 리더십 네트워크(Leadership Network)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선교적 교회 합병(missional church merger)'이 미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전체의

2%에 달하는 교회들이 이같은 이유에서 합병했으며, 2013년경에는 그 비율이 5%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예로, 지난 해 피닉스의 이스트밸리 바이블 처치(East Valley Bible Church)와 프랙시스 처치(Praxis Church)는 각각 시에서 유명한 메가처치와 한창 성장 중인 떠오르는 교회였지만, 피닉스 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서로 합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탄생한 리렘프션 처치(Redemption Church)는 올해 초에 는 세번째 교회까지 그들의 파트너

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성장해 총 4개의 캠퍼스에 출석교인 수가 4,800여 명이 됐다. 이는 세 교회가 합병하기 전보다 14%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표 목사인 저스틴 앤더슨 목사는 "우리는 에베소교회나 빌립교회처럼 하나의 도시 교회를 갖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피닉스의 교회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존속을 위해 합병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후에도 쇠퇴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선교를 위해 합병한 교회

들은 합병 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병합의 공식은 '1+1=10', 즉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합병은 선교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규모나 교단, 민족성과 관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해 말 미수리의 한 아프리카인 교회와 백인 교회는 한 백인 교회와 합병했다. 백인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 데 동의도 이뤄졌다.

현재까지는 선교적 합병은 주로 멀티 사이트 교회들 간에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 교회의 20%에 달하는 멀티 사이트 교회들

대부분은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다. 다시 말해 선교를 위한 합병은 건강하게 성장 중인 교회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점차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교세 전체나 감소하고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선교적 합병은 이외에도 정체성의 확대와, 신뢰성 증대, 재정적 효율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합병하려는 교회들 간의 차이 극복이라는 도전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07년 말 다른 교회와 합병하면서 상당한 성장을 경험한 미네애플리스 이글 브룩 처치(Eagle Brook Church)의 대표 목사인 스타트 앤더슨 목사는 "합병은 잘 진행될 때 매우 좋은 선택이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만 받아들이는 듯하다. 전혀 다른 두 문화를 섞느니 새로운 교회를 위해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합병이라는 것은 선교를 위해 감수하는 도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순현정 기자
hjison@chtoday.co.kr

남가주동신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부흥회 개최

김권수 목사, "구원은 영접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2일부터 4일까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서울동신교회 김권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김권수 목사는 첫날 "현세와 내세에 유

익한 필수과목"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믿음에 대해 강조했다.

김 목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나를 받게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반겨줄 사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

에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직도 한국교회 교인 60% 정도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헛갈리고 있다."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김 목사는 "보통 천국은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간다고 하고, 지옥은 악하고 나쁜 사람이 간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얼마나 선행을 베풀어야 천국에 갈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영국에서 공부할 때 불교학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은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베풀어야 간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구원은, 신앙생활을 시작해 제자 된 삶을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중심삼고 사는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볼 때 합당한가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미기총 대각성 운동, 전 미주로...

대각성 기도회 확산 컨퍼런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송정명 대표회장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이하 미기총,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사진)가 남가주 한인 교회에 불교는 대각성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 전체 "대각성 기도회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9월 20일(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소재 베델한인교회를 컨퍼런스 장소로 1박 2일 간 이뤄지는 이 컨퍼런스는 미기총이 주최하고,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 등이 후원한다. 송정명 미기총 대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십 침체 등 지금이야말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대각성의 때"라며 "이미 남가주 일대에 베델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라카나교회 등에서 대각성 기도운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불타고 있다.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주체하지 못해 먼저 각 도시에 기도의 불이 확산될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1박 2일 간 이뤄지는 이번 대각성 기도회 컨퍼런스는 "개회예배와 만남, 세계상황과 대각성 기도운동 필요를 나누는 전체토론, 북미주교회협의회 회장단의 회개 통회 대각성 기도회, 북미주 각 도시별 대각성 기도회의 불길 점화와 전략 토론, 각 도시별 대각성 불길 점화 타임테이블 토론, 폐회예배"로 이뤄진다.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
 213-386-5500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전인 치유 사명은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여!"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신입생 모집**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편입생 모집**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 물리 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갱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노,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	--

예약 전화 : 562-965-5112



“은혜에 대한 보답은 신앙을 자손에게 전승하는 것”

월서연합감리교회, 조영진 감리사 초청 부흥회 개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부흥회를 개최했다. 감사에는 조영진 감리사가 선 가운데 4일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세기 12: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 감리사는 “아브라함 가슴 속에 소원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

는 것.”이라고 했다. 조 감리사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눈이 찢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의 자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태평양을 건너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감리사는 탈무드를 예로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논의를 했다. 금과 보석을 모아

서 하나님께 드리자,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논의한 끝에 미래를 드리자, 고 했다. 미래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신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줘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서 후손들이 믿음의 지도자로 키우는 것

이다.” 토마스 맵 기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을까? 있다!

선 미니스트리, '감사학교' 오는 24일부터 8주 동안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위로하는 취지로 선 미니스트리(SON Ministry) 주관 하에 '감사학교'가 열린다. 오는 24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선 미니스트리에서 열리는 감사학교 감사에는 김정한 선교사, John Kim 목사, Sue Kim 목사, 진미에 가정상담전문가(주정부인가 가정상담사)가 나설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감사기정 만들기 - 감사기정 만들기 - 부부관계(4회) △감사자신 만들기 - 건전한 자아상 (2회) △감사자녀 만들기 - 진미에, 자녀와 상담기술 (2회) △감사이민 만들기 - Kingdom Dream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감사마음 만들기 - 성경적 감사, 오기와 욕망, 감사마음 밭, 감사기도 △감사영성 만들기 - 영적독해결하기, 영적자음, 찬양회복 △감사일터 만들기 - 인간관계, 직업전문성, 사업현장에서 감사 △감사선교 만들기 - 선교의 기초, 부모선교사, 가정선교사, 열방선교사 등이 마련됐다.

선 미니스트리 관계자는 “감사를 잊은 그대, 감사를 도둑맞은 그대, 감사가 실종된 신앙과 가정생활, 그대를 예수님 사랑으로 초청한다.”라며 “선교사역 26년, 고난과 역경과 실패,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고 배우게 하신 감사신앙, 감사로 인한 축복, 결정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비는 150불이며, 선교사들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 714-522-7766(선미니스트리 감사학교) 토마스 맵 기자

목사 사칭 수백만달러 투자 사기 한인 기소

한국 대형교회 목사 피습사건 용의자, 도피 중 사기혐의 압송

목회자 혹은 선교사로 사칭하며 수백만 달러의 투자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최근 미 연방 당국(ICE)에 의해 기소됐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2일 보도했다.

리포니아 프레즈노와 LA등지에서 지난해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피생활 중 최 씨는 목사나 선교사 혹은 연방 정보당국 요원을 사칭하며 백악관에 기념품을 공급한다는 사업 명목으로 한인들에게 접근, 분기마다 3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수백만 달

러를 빼돌렸다. 연방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트리니티 캘리포니아 신학교(Trinity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 '국제 기독교 선교센터(International Christian Mission Center)' '선민무역회사(Sunmin Trading Inc.)' 단체의 대표로 활동했으며, '선민무역회사'에 100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매 3개월

마다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ICE는 최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한 한인여성으로부터 총 131만95달러의 투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 최소 12명 이상 투자자들에게 263만 달러 상당의 돈을 끌어모은 증거를 확보했다.

최 씨는 2005년 한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 미국의 협조 아래 공식 인

도됐으며, 현재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뒤늦게 최 씨의 도피 생활 당시 행적을 수사하던 미 검찰은 최 씨가 목사, 선교사, CIA, 미 연방수사국 요원 등을 사칭해 투자사기를 펼친 사실을 발견하고 기소했

권나라 기자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VIS 인정]

▶ 영어 과점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일한 직업 추천

1. 메디칼오피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보조, 약사보조
2. 비즈니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아카운팅 AAS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 120만급, 방문비자 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ORT 졸업후 워크퍼미, 소살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상담: 플리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VCS, 멕시코 아이캠프 위한 후원의 밤 열려 오는 12월, LA타운 내 아이캠프 개최 예정

국제의료구조단체 비전케어서비스(VCS) 미주서부(이사장 알렉스 장)가 지난 8월 31일 오후 6시 월서아트센터에서 멕시코 아이캠프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VCS는 미주서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 등의 안과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이창영 글렌데일 도시계획위원장의 사회로 VCS의 지난 활동을 소개하며, 지난 7월에 VCS 미주법인에 주관한 아프리카 가나 아이캠프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의 보고 및 멕시코 캠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카르멘 트루타니치 LA시검사업장, 최영진 LA부총영사, 나성현인교회 김성민 목사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VCS 미주서부는 내년 총 2회의 캠프를 직접 주관할 예정이며, 미주법인과 함께 총 6회의 중남미와 아프리카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에 남가주 지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백내장 등 안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한인들과 중남미 출신 이민자



멕시코 의료선교를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이날 행사엔 카르멘 트루타니치 LA시검사업장, 최영진 부총영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들을 위해 LA아이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알렉스 장 VCS 미주서부 이사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

들이 있다”며 한인커뮤니티의 아이캠프를 위한 후원 참여를 요청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캠프 참여를 호소했다.

토마스 맵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한가위 아이토크비비로 안부 전하세요~

요금은 DOWN 기쁨은 UP

새고객 보상프로그램*
비싼 AT&T, Verizon 집전화 아직도 쓰고 계세요?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최대 \$100 크레딧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2.2902

30일 환불 보장!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신 모든 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전화회사의 요금청구서를 확인해보세요, 사용을 안하셔도 매월 \$20이 초과 됩니다.)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전화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24.99/월 (기타 수수료 별도)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070 전호 없이도! 한국 번호 제공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 없이도!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가능(매월 500분 제공)

지금 사용중인 집전화 요금, 아이토크비비와 비교해 보세요!

	iTalkBB 글로벌플랜	AT&T Complete Choice Enhanced	Verizon Freedom Value
월간 요금	\$24.99	\$26.00	\$52.99
미국 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장거리 추가요금	무제한
한국, 중국, 일본 무선전화	무제한	불포함	불포함
한국 로밍번호 제공	070 번호 제공	불가능	불가능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서비스	월 500분 제공	불가능	불가능
발도 부가금(수수료 등)	없음	있음	있음
보상프로그램	\$70	없음	없음
12개월 총 금액	\$229.98(수수료 포함)	\$312.00(수수료 별도)	\$635.88(수수료 별도)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에서 신규 아이토크비비를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 703.348.7544
홍보자료 요청 02-703-0904

소셜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새로운 논쟁 중

교사 학생 간 도움 안돼 vs 유익한 의사소통의 도구

뉴스 소식통으로서 인터넷 역할이 텔레비전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학교 교사들에게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반면 교회는 이것들을 선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소셜 사이트 사용을 한때 반대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데이턴 공립학교의 교사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과 교재를 나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데이턴의 교사와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됐다. 미소리주의 새로운 법은 교사들이 사적으로 현재의 학생 혹은 과거의 학생들과 페이스 북 혹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소리주 교사연합이 자유 발언의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법안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교사들을 자극했다.

데이턴 공립학교의 한 학생의 부모 켈리 크레이븐(Kelly Craven)은 “과제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교사들

과 대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크레이븐은 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금지에 대해 그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찬성하며 그 논쟁에 끼어들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메시지에서, 교황은 새로운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는 “위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친구 보다 더 많은 가상의 친구들을 갖게 되는 것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베네딕토는 최근 문서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수준에서도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상의 접촉이 대신할 수도,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연구가들은 성인의 60퍼센트가 소셜 네트워크에 속해 있으며, 92퍼센트 이상의 아이들이 소셜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주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새로운 금지령을 내렸다. 게다가, 학교 관계자들은 교사들의 학생들과의 소셜 네트

워크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입안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침례회 연맹(Southern Baptist Convention)의 소셜 미디어 전문가 크리스 포베스(Chris Forbes)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혁명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 증거는 최근 이집트와 중동에서 일어난 정치적 움직임이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데 소셜 미디어가 시사하는 바는 긍정적이 의미심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날 사회적 네트워크는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인터넷, 웹 대해 정통한(Tech Savvy)’ 세대를 대륙시킨다. 퓨리서치 센터(the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18세에서 33세의 성인들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들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보안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서나 매일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신앙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소

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소셜 미디어는 복음주의적 아웃리치, 신자들을 위한 지지, 선교 전략과 기독교 진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웹로우업테크놀로지의 마케팅과 커뮤니티의 부회장 커티스 사이몬(Curtis Simmons)은 “소셜 네트워크 도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과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교사의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비평가들은 교사들을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과정을 마련한다면, 금지령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 대학교(Calvin College)의 의사소통 기술과 과학 교수 켄틴 쉴츠(Quentin Schultze)는 “인류는 본래부터 멀티미디어 생명체이다.”라며 “네트워크는 직접 접촉을 포함하여, 인쇄 매체, 전자 디지털 매체 등 모든 매체를 가로질러 여러 형태를 취한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기고]

“이제는 미주 한인이 미국을 살릴 때입니다”



박용덕 목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미국은 지금 러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될지 모르며, 마치 모래 위의 성과 같이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가장 큰 문제로 보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크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가장 죄악시하는 동성애법들이 머리를 들고 올라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도덕적, 영적 타락과 더불어 각종 위상들과 사탄에 대한 경배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등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미 2000과 2008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저지하려던 동성애 법안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주 상원 의원인 Mark Leno에 의해 SB48이라는 법안으로 발의 되고, 상정되어 주 의회에서는 49대 25로 통과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민주당)이 서명하므로(2011년7월14일) 2012년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SB48 법안의 큰 문제점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역사에 관해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합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이 법안은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이며, 이로써 모든 배경과 모든 분야 사람들의 공적이 미국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를 위한 진일보”라고 밝혔는데, 이 얼마나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동성애를 거부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교사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금 기독교를 중심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이 법안을 저지하고자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미 2000과 2008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저지하려던 동성애 법안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주 상원 의원인 Mark Leno에 의해 SB48이라는 법안으로 발의 되고, 상정되어 주 의회에서는 49대 25로 통과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민주당)이 서명하므로(2011년7월14일) 2012년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금 기독교를 중심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이 법안을 저지하고자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월 말까지 유권자 등록된 시민권자들만 가능한 65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큰 난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에 우리 모두 발 벗고 나서서, 특히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심장을 뛰게 했던 LA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미국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 한국에 6.25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을 구하려 갔던 미군 중에 약 5만 명이 가까이 사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 뜨거운 믿음과 영성을 가진 한국 기독교인들을 미국에 보내 저들로 미국을 위해 부름 받게 하므로 미국을 살리고자 하신다며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6.25전쟁 동안 한국 땅을 밟은 미군은 총 178만 여명이었고, 그들 중 살아서 부모 품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45,116명,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이군인만도 92,134명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미군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을 미국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SB48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든 한인 교회들과 목사님,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반드시 SB48법안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을 살리기 위한 기도운동으로 2011년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로즈 볼 스타디움(Rose Bowl Stadium)에서 계속 될 10만 명 기도운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리기는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을 살릴 영적 군사로 이 기도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6.25 한국 전쟁 때 미국에게 진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진주보석이 결혼 예물로서의 가치와 의미는?

한 알의 영롱한 진주는 어떻게 탄생할까



조개에 핵을 삼입한 후 진주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이 걸린다.

이렇게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진주 조개의 절반은 태풍이나 적조 현상,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죽고, 역경을 이기고 살아 남은 진주 조개

중에서도 양질의 진주가 나올 확률은 불과 20-30%에 지나지 않는다.

진주(Pearl)는 오랜 역사를 인류와 함께 하면서 눈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에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이 결혼 예물로서의 기쁨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천년 대에 들어서서

결혼예물도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명실상부한 결혼예물로 진주보석도 자리매김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치를 점차 신부와 양가 부모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개가 한 알의 진주를 잉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참고 인내하듯 사랑의 완성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는 귀한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진주가 모성과 같은 산고의 아픔을 견디어 내 듯이 태어났기에 말이다.

특히 갖 태어난 진주의 은은하고 영롱하게 퍼지는 그 빛깔이 신부의 결혼과 순결을 상징해주는 보석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결혼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것이다. 흰 보석으로서의 입지가 이제는 결혼 예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결혼보석으로서의 진주가 자리매김하면서 시중의 보석상들도 근년에 들어 진주보석이 예물로서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면서 매출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주 전문 고베펠 사 관계자는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결혼 성수기를 맞이해 예물로서의 진주 보석 세트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했다면서 어느 해보다도 크게 매출이 일 것으로 내다 보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렌데일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8일 (목)~9(금)일
장소: 힐튼 호텔 Hilton Hotel (한국 마켓 맞은편)
지하 몬트로스 룸 Montrose Room (Lowel Level)
100 West Glenoaks Boulevard, Glendale, CA. 91202

[부에나파크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10일(토)
장소: 홀리데이-인 Holiday Inn - Buena Park
1층 가든 1룸 Garden 1 Room (1st Level)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 들께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CA LIC #0G67882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페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타올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피종진목사 초청 남가주한인 선교대회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 피종진목사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남가주한인선교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9월 16일(금) - 9월 17일(토) 오후 7시 30분
2011년 9월 18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 풍성한교회 (박효우목사 시무) 213-503-3355
29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 문의 : 총무 정요한목사 213-422-9191

남가주한인목사회

기도통해 역사 일어나는 할렐루야대회 되길



참가자 단체사진

2011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기도회가 열렸다.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새 언약교회(담임 이희선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여느때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 뜨겁게 기도했다.

장석진 목사(공동대회장)는 '기적을 일으키는 대회가 되게 하라(눅9:10-17)'는 설교를 통해 기도로 역사를 일으키길 당부했다. 그는 임동선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던 첫 대회부터 메디슨스퀘어가든과 퀸즈칼리지에서 열었던 대회 등을 열거하며 "지금까지 여러 대회장님들이 수고해 31회를 맞았다. '뉴욕이여, 생기로 충만하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되는 이번 대회가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되고 성령의 충만한 생기가 넘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이번 대회가 '예수가 참 생명의 양식이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임을 전하는 대회? 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야말로 영과 육을 채울 수 있는 참된 양식을 전하는 대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구원의 역사

가 일어날 수 있는 대회? 적은 헌금이라도 귀히 쓰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대회? 교계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전달되는 대회가 되길 당부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도전했다.

참가자들은 마음을 모아 '미국과 조국을 위해(황영송 목사)? 뉴욕동포사회 복음화와 교계를 위해(이지용 목사)? 할렐루야 2011 대뉴욕복음화대회(성인, 청소년, 어린이)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한편 대회를 앞두고 4일 오후 5시 뉴욕에일장로교회, 프라미스교회에서 연합성가대 연습이, 7일 오후 1시 공영주차장에서 노방전도가 있을 계획이다. 노방전도는 뉴욕전도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할렐루야대회 홍보도 함께 한다.

준비위원장 이희선 목사는 준비기도, 실부, 후원, 하나님 역사가 대회 개최에 있어 필요하니 새벽예배를 통해 각 교회에서 대회를 위해 꼭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윤준 목사는 "첫날 집회는 금요 예배를 연합부흥회로

한다는 마음으로 교인들과 함께 참여해달라. 또한 어려운 때지만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도자컨퍼런스 준비위원장 양승호 목사는 "장소를 두 번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다. 컨퍼런스는 할렐루야 대회 수익금과 회원 교회, 후원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수익금을 회원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과 나누고 싶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힘을 갖고 재충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규 목사는 첫날 오후 3시 30분 강의가 시작되므로 그 전까지 장소에 도착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는 '뉴욕이여, 생기로 충만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성인 집회 강사는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담임), 어린이 집회 강사는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회 담임)이다. 어린이, 성인 집회는 9월 9일, 10일 오후 7시 30분, 11일 오후 5시 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집회를 위해 플라싱공영주차장에서 10일 오후 6시 20분, 6시 40분, 7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윤주이 기자
jooyee@chdaily.com

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 복음화대회 16일부터

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회장 강승호 목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둔다는 삶'을 주제로 9월 16-18일 필라델피아장로교회에서 복음화대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다.

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는 22일 오후 8시 새한장로교회에서 제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임관호 목사(교협 서기)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의 은혜(고전 15:9-10)'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2부 회무 보고는 강승호 목사(교협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는 교협 주관으로 열린 8월 13일 광복절 예배, 서울신학대학교 카펠라 합창단 공연을 그동안 실행 사업으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10월 16일 오후 6시 필라델피아장로교회(담임 이대우 목

사)에서 제32회 정기 총회 개최 △몽고메리카운티 형사법원 행정처장 후보 안문영 변호사 적극 협조 △8월 30일 세천교회 헌법개정위원회 모임 등을 논의했다.

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는 특별히 복음화대회 개최를 위해 개교회들이 적극 협조할 것을 회원 교회들에게 당부했다. 대회는 9월 16, 17일 오후 8시, 18일 오후 6시에 열리며 17일 오전 10시에는 교역자 및 제자 세미나가 열린다.

윤주이 기자

대기업 미국 진출에 한인교회 함박웃음

솔즈베리한인교회, 최근 17가정 정착 도와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김동영 담임 목사는 요즘 부쩍 늘어난 입국 이민 가정을 섬기느라 쉴 틈 없이 텔레스공함을 오간다. 솔즈베리에서 30분 북쪽으로 떨어진 델라웨어 씨포스 시에 있는 알렌 패밀리 식품회사를 한국 최대 육산육가공 및 곡물사로 업체인 '하림'이 인수하면서 한국에서 입국하는 한인 가정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인 하림이 진출하면서 지역교회인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사역도 탄력을 받고 있다. 3월 부터 9월 초인 지금까지 17가정이 한국에서 입국했으며, 9월에 3가정이 더 입국할 예정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들도 지난 6개월 사이 8가정이 새롭게 등록하는 등 부흥의 새바람을 맞고 있다. 담임 김동영 목사는 "솔즈베리 지역이 이민자와 은퇴자들의 새로운 주 정착 도시로 떠오르는 한편, 대기업 하림 업체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교회를 찾는 이민 가정들도 늘고 있다"며 "하림 회장과 사장단과도 교제하며 비전을 들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연합축제 자료사진

었는데, 앞으로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는 성경구절 같이, 이 지역에도 믿음으로 소망하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축산전문기업인 하림그룹은 7월 2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소재 파산법원의 청문회에서 알렌패밀리푸드(Allen Family Foods)사의 자

산 입찰 결과를 최종 승인받아 미국 진출을 확정했다. 하림그룹은 알렌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향후 3년내 연매출 10억달러 규모의 회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지난 1차 인수산업으로 분사건물, 부화장 2개, 도계가공공장 2개, 사료공장 2개, 렌더링공장 1개, 사육농장 400여만 평을 확보했다.

권나라 기자

방대식 목사, SEED USA 동부 책임자로

우즈베키스탄 14년 현지 사역 경험 바탕으로 선교사 섬기겠다

방대식 목사가 9월 1일(목) SEED 선교회(국제 대표 이원상 목사) USA 동부지역 책임자로 부임했다. 방 목사는 SEED 소속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서 14년간 교회개척, 현지 신학교 지도자 훈련 및 교육사역을 감당했으며, 안식년이던 지난 2년 간 파송교회인 뉴욕중부교회에서 선교목사로 사역을 감당했다.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선교지를 방문해 두 현지 고려인 전도사를 목사로 안수, 현지인에게 선교지 교회 리더십을 인계하고 돌아온 그는 SEED USA 동부지역책임자로 그동안 장세균 선교사(전 SEED USA 국내사역부대표)가 감당하던 '한인 1.5세, 2세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선교 동원과 교육(선교 세미나, 선교교육 등)을 주업무로 맡게 된다. 방 목사는 "어려운 이슬람권 지역인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메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선교 경험을 살려 이 마지막 때에 지역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 아울러 지역교회의 선교행정, 선교정책 수립, 선교교육 등의 도움이 필요하면 SEED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심심껏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겠다"며 "선교지에 첫발을 들인 그 심정으로 지역교회 선교동원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선교학을



방대식 선교사의 가족사진

졸업한 그는 우즈베키스탄국립야카데미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방 목사는 SEED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장도 맡아 소속 선교사들을 섬기게 된다.

권나라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푸엔테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세상이 꿈꾸는 도시 - 지웰시티

well city



이상규

DRE License #: 01356123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818.439.8949

Josephlee@newstarrealty.com

대한민국 최대 개발 프로젝트인 세종시가 인접해 있는 초특급 로케이션

대한민국 최대 **지웰시티** 복합도시

단지앞 중부권 최대규모 현대백화점 2012년 오픈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정과학산업단지의 배후도시, 고품격 상류사회가 펼쳐진 대한민국 최대 복합도시 - 지웰시티

혜택1. 20만 투자에 3.5% 연 배당금 2년간 보장
혜택2. 전세보증금제도 선순위 대출 책임
혜택3. 매매대행 제도 운영

대한민국 최대 복합도시 지웰시티를 뉴스타 부동산이 자신있게 분양합니다

Office: 562.824.4989



김현숙

DRE License #: 01448463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661.313.0977

Hyunkim@newstarrealty.com

Location

트리플 프리미엄을 누리는 중부권 최대 허브 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정과학산업단지의 배후도시
- 청주국제공항과 KTX 호남분기점인 오송역이 가까이에 위치한 국제도시
- 경부고속도로(청주·C), 중부고속도로(서청주·C) 및 제2순환 도로를 이용하는 쾌속도시
- 외곽순환도로, 상당로, 흥덕로를 통해 오창지구 및 청주시내로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도시
- 청주고, 복대고속도로, 복대중, 세광고, 총복대, 청주과학대, 청주대 등 청주의 명문학군

Landmark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15만평의 푸른섬

- 멀리서도 돋보이며 청주의 새로운 자부심이 될 최고의 랜드마크
- 4,300여 가구의 대단지 프리미엄과 55층(예정)의 랜드마크 타워
- 차량동선은 지하로, 보행자동선은 지상으로 설계된 차 없는 단지
- 디지털미디어로 화려한 이벤트를 연출하는 1Km 이상의 단지를 가로지르는 워킹갤러리
- 시민공원, 공예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경관녹지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에코벨트
- 2년 개방형 평면설계로 아름다움을 극대화 하는 전망

Special Plan

일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

- 충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법적기준인 콘크리트 두께 210mm를 넘는 370mm(콘크리트250mm+난방, 완충재120mm) 적용
- 환기가 잘 안되는 주상복합의 단점을 보완한 폐열회수형 환기 시스템 설치
- 관리비 절감 효과와 원활한 에너지 공급 방식의 지역난방 시스템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시스템
- 최첨단 유비쿼터스 단지로 계획되어 미래형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도시

High Society

호텔보다 품격 높은 상류사회 자부심

- 파티나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고품격연회장과 주민문화센터 열람실, 문고, 여학학습실, 스티디실로 이뤄진 단지 내 도서관
- 워크갤러리와 연결 되어 쇼룸센터, 편의시설 등이 준비한 선권광장
- 주거동 전체 필로티설계와 고급 엘리베이터 출입이 있는 호텔식 로비
- 그랜드 카페, 클래식바, 라이팅 포레스트, 리버사이드 등의 자연 친화적인 단지

198.23m² (2,100sf)

중후함과 격조 높은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한 정제된 공간에 조명의 감아를 이용하여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Yellow와 Brown의 컬러톤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에서도 격조 높은 공간을 연출합니다.



상기 위치도 및 이미지는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소지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계획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IS ADVERTISEMENT IS BASED ON INFORMATION GIVEN BY G.WELL CITY. THEREFORE, NEWSTAR REALTY & INVESTMENT IS NOT RESPONSIBLE FOR ABOVE ADVERTISEMENT. ABOVE INFORMATION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뉴스타 부동산은 세제법규가 변경될 때에 한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게 있습니다. 경고: 캘리포니아 부동산거래는 어떤 계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행위로 이루어지며, 이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또는 방지할 수 없습니다.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 HAS NOT EXAMINED THIS OFFERING,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NDITION OF TITLE, THE STATUS OF BLANKET LIENS ON THE PROJECT OR ANY, ARRANGEMENTS TO ASSURE PROJECT COMPLETION, ESCROW PRACTICES, CONTROL OVER PROJECT MANAGEMENT, PARTIALLY DISCRETIONARY PRACTICES OF ANY, TERMS, CONDITIONS, AND PRICE OF THE OFFER, CONTROL OVER ANNUAL ASSESSMENT'S OF ANY, OR THE AVAILABILITY OF WATER, SERVICES, UTILITIES, OR IMPROVEMENTS. IT MAY BE ADVISABLE FOR YOU TO CONSULT AN ATTORNEY OR OTHER KNOWLEDGEABLE PROFESSIONAL WHO IS FAMILIAR WITH REAL ESTATE AND DEVELOPMENT LAW IN THE COUNTRY WHERE THIS IS SITUATED.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손짓”

[간증]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최윤미 자매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M52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선음악회에서 간증을 위해 강단에 오른 최윤미씨(33)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 아이를 둔 밝고 건강한 30대 초반 엄마의 모습이었다. 어떤 간증을 전할지 귀를 기울였던 청중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녀에게 힘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갈 무렵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됐다. 임신기간 중 주변 사람들이 ‘임산부가 맞느냐’고 물을 정도로 너무나 건강했으며, 기형아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녀는 자신이 장에 아이를 둔 엄마가 될 거라고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네 살 준영이는 당시 39주를 채우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남들보다 한 뼘이나 더 큰 키와 장군같이 늠름한 손과 발을 가진 건강한 사내아이로 세상에 태어났다.

대부분의 가족이 그렇듯 모든 것이 평온한 가운데 갓 태어난 준영이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즈음, 뜻하지 않게 준영이는 출생 후 삼주가 지날 무렵 심한 고열을 했다. 그

저 가벼운 감기쯤으로 생각하고 찾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의 상황은 부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고, 준영이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앓게 됐다.

예후가 좋지 않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응급실을 찾은 바로 다음날, 준영이는 몇 번의 무호흡과 함께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코마상태에 빠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갑자기 쓰나미 같이 밀려 온 터라, 그저 악몽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 악몽에서 깨어나라고 병원 비상구 복도에 앉아서 가슴에 멍이 들 만큼 제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나라고... 하지만 그 것은 저희 부부가 감당해야할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생지옥이나 나름이 없었습니다.”

그 후 2개월이 넘는 병원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전과는 다른 준영이었다. 뇌의 80 퍼센트 이상의 손상으로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으며, 빨지 못하는 준영이에게 우유 30밀리리터를 먹이는데 2-3시간은 기본이었다. 눈의 구조



최윤미, 최윤미씨 준영, 현준 가족

는 정상이지만 뇌에서 사물이나 사람을 인지하고 못해 눈을 뚫으나 볼 수 없었고, 뇌신경계 형성이 되기도 전에 뇌가 대부분 손상된 터라, 운동이나 인지 등 모든 방면에서 어려움

을 가지게 됐다. 담당 교수는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지낼 거라”는 말도 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준영이와 최윤미 씨 부부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다.

최 씨는 병실 화장실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면서 남편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왜 하필 나가요?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나는 지금껏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고,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가요? 왜 하필 나가요?...” 절규하며 따져 물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남편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난 더 이상 믿지 않을 거라던 그녀는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어려서부터 주위의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이종적인 행동에 상처를 받았던 그녀는 군대 종교병과에서 근무하던 남편을 따라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계속적으로 손짓을 보냈고 그녀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모시게 됐다.

최윤미씨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움켜질 수록 우리를 더욱더 옥죄게 하는 열려와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 새해가 되면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준영이 제발 목 좀 가누게 해주세요.” 이었지만 올해 새해 첫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우리 준영이를 온전히 믿고 맡기는 내려놓음의 믿음을 허락해 해달라는 것”으로 바뀌었을 만큼 그녀의 바람과 소망도 달라졌다.

최윤미씨는 요즘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서너 시간 잠을 잘 시간도 없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간호사라는 비전을 품고 있다. 최씨는 “하나님은 제가 지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즐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이런 제 삶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즐거움과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녀는 “저의 작은 간증으로 조금은 장애인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어려울 때 신앙으로 든든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seattle@chdaily.com

벼랑 끝에 세우셨던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인터뷰] 2집 앨범 ‘미리암의 노래’ 출시한 CCM 사역자 김혜은 집사

“하나님께서 2집 앨범을 제작하는 내내 저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듯 했어요. 하루도 넘치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만나처럼 그날 필요한 만큼은 어김없이 채워주셨죠. 미리암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다를 건너자고 한 모세를 따라 갈 때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미리암의 노래]가 나왔어요.”

CCM 사역자 김혜은 집사가 얼마 전 2집 앨범 [미리암의 노래]를 출시했다. 1집 앨범 [now I know]에 이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만에 이전보다 더 깊어진 은혜와 사랑, 농익은 삶의 경험이 절절히 묻어나는 이번 앨범은 기획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나와 본인은 물론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미 주류 음악계에서도 인정받는 바비 신 프로듀서와의 인연과 앨범 제작, 선곡부터 녹음, 마지막 한국에서의 작업까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도움, 소셜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펀드레이징까지... 지난 4개월은 그녀에게 하루 하루 천년 같은 기간이었다. 어쩌면 2집 앨범 [미리암의 노래]는 마치 모세가 매섭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등지고 지팡이를 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향해 들어올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부모하고 회귀적

인’ 도전의 결과물인지 모른다.

“앨범을 만들면서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다’고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앨범의 컨셉을 ‘물’로 잡고 2년 정도 제작과정을 예상했어요. 시작할 때만해도 주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죠.”

한번은 당장 내일 몇 천불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은 없고, 새벽 3시에 페이스북에 ‘하나님...’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곧 울리는 전화벨.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가 서부에서 뜬금없이 전화를 한 것이다. 갑작스러웠지만 이런 저런 안부를 묻다가 끊기 직전 ‘그런데 왜 새벽에 깨어 있어?’라고 물었고, 상황을 설명하니 후배 왈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화 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필요한 금액만큼 채워졌다.

이야기 보파리를 풀어가던 김혜은 집사는 “바다가 열릴까 안 열릴까 고민했을 미리암처럼 더도 덜도 아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서, 당신 하나만 바라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바다가 열려서 소고를 들고 기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웃음)”라고 감사했던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 ‘미리암

의 노래’를 비롯해 5살 딸 지현이와 함께 부른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지현이에게)’, ‘내 사랑을 주께’, ‘내려주소서’, ‘I’ll Be There For You’, ‘목마른 영혼’, ‘독수리같이’, ‘나의 구원자’,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의 은혜라’ 총 열 곡이 수록돼 있다.

앨범 출시와 함께 동남부 및 서부투어를 기획하고 있는 김혜은 집사는 또 다른 일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문화사역 ‘꿈’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10월 초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꿈’은 김혜은 집사가 몇 년간 섬겨온 ‘그 레이스 보컬 아카데미’를 확장해 노

래가 좋은 모든 이들을 위한 ‘오픈 마이크로폰’, 매주 찬양모임, 언제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작은 교실, 밴드, 연극, 합창 연습장소, 댄스, 피아노, 노래 연습 등 ‘문화’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면 말 그대로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는 ‘문화사역의 장(場)’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생일 파티, 베이비샤워, 돌잔치 등 작은 공간을 빌리고 싶은 이들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인터리어하고 있다. 장소제공과 간단한 스낵은 무료로 제공되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헌금을 받아 운영할 방침이다.

앨범 및 사역에 대한 문의 404-643-2511, leehaeun@gmail.com, 박현희 기자



2집 앨범 [미리암의 노래]를 출시한 김혜은 집사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9월 12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오토뱅크 Auto Bank

\$1,000 ~ \$7,000 중고차 다량 보유

저렴한 차 사고 팝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고장시 지정 정비소 통환수리 (80%DC)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John Ko
T 213-908-3308
http://joencha.com

10개 구절로 만든 휴지 성경... 평신도 교회의 12 원칙

한 미국 목회자가, 기독교 공동체가 완전히 지하에 숨어 있는 북한으로부터 배운, 12개의 비관습적이며, 심지어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회 건립 원칙을 발표했다.

북한 지하 교인들과 10년간 함께 일해 온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미국 교회가 하는 방식은 북한의 신자들을 죽게 하거나, 투옥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숨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서울의 복음주의 교회의 폴리 목사는 "서구나 남한 같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제자 훈련은, 종교의 자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정한 건물과 특별히 훈련된 전임 사역자와 풍부한 자원들을 통해 훈련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하지만 박해받는 교회, 특히 북한의 교회 안에는 이것들이 부재하다."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밝혀진 자는 재판 없이 무기한 강제 노동에 처해지며, 몇몇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공개 사형에 처해진다.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 지하 교회의 3명의 지도자들이 처형되었으며, 20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경찰은 평안도 평성시 구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하여 종교적 활동을 위해 그곳에 모여 있던 23명의 신자들 모두를 체포했다. 20명의 신자는 요덕의 악명 높은 강제 노동 수용소 15호에 보내졌다. 그리고 2009년, AP 통신사는 33세 살의 기독교 여성인 리현옥이 성경 보급과 외국의 스파이 혐의로 북한에서 공

개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의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일하는 오픈 도어스 선교회는 9년 동안 북한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분류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약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북한 기독교인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폴리를 놀라게 했다. 이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 건물도, 봉급을 받는 목회자도, 성경도 없다. 그는 팜플릿을 통해, "문자 그대로 서구의 우리가 제자 훈련에 있어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전혀 없다."고 썼다.

지하 교인들, 美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

폴리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성경이 아마추어나 평신도들을 지원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립버로서 훈련받지 않았던 예수와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해받는 교회 같이, 평신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인들처럼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지체들에게 성경 구절 암송을 통해 "살아있는 성경"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모든 지체들은 주일 예배 설교를 교대로 하며, 설교자는 암송한 구절들로 설교한다.

또한 이러한 교회 구조는 주일이 주된 예배(main service)가 아님을 강조한다. 개개의 가족들은 교회로 간주되며, 매일 예배를 드리고, 리더십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뀌며, 노래를 부르고 암송한

메시지들을 나눈다. 폴리는 "보통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9개의 성경을 갖고 있다. 4년 반 동안 기독교인이었던 한 북한인은 10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휴지로 만들어진 성경을 기억을 통해 만들었다."고 썼다.

폴리에 의해 규정된 평신도 교회에서, 지체들은 성경의 한 구절과 찬송 하나를 매주 암송한다. 교회는 24명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크기이다. 교회가 커지면, 작은 그룹들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아마도 평신도 교회의 가장 놀라운 원칙은 일회를 쉽게 잃게 한다는 점이다.

폴리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교회의 목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빨리 교회 안으로 안내를 받도록, 교회 문턱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며, 따라서 제자훈련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지하교회의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의 사람들이 정부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은 박해받는 교회에게 있어서 치명적이다."

폴리는 "낮은 문턱은 그들에게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오늘날 신자들의 펠로우십 안으로 안내받고 있는가에 대한 현저한 대조를 보여준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W 복음주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2011년 1월에 시작되었다. 폴리는 미국, 중국, 남한의 교회들을 포함하여, 평신도 교회 조직의 지체 수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폴리는 "나는 북한의 박해받는 교회 환경으로부터 창

■ 평신도 교회의 12 원칙 ■

1. 입회를 쉽게 하지 않는다.
2. 주일예배를 대예배로 정하지 않는다.
3. 지체들을 전문가가 아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훈련한다.
4. 받고, 기억하고, 찬송과 성경을 전해준다.
5. 이미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만난다.
6. 사람들을 살아있는 성경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7.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8. 매주 각 지체들의 성장을 측정한다.
9. 교회 일을 할 때, 아이들도 당신과 함께 있도록 하라.
10. 지역 교회를 이끌 평신도 목사 자원자를 이용하라
11. 십일조를 하라, 그러나 평신도 교회에 하지 마라.
12. 전도하라, 길에서 양식을 받으라.

조한 모델의 특이성은 그것이 가장 안에 뿌리는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예배를 위해 그들의 가족 밖에서 모일 기회를 가진 신자들이 드물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제의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대 예배는(the main service)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아니라, 대 예배는 가정 안에서의 매일 밤 드리는 예배이다. 우리는 서구 교회가 간과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장 위대한, 리더를 기르는 방법을 발견했으며, 그 방법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전통적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자녀들도 역시 그것을 배울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삼계탕에 살아있는 전복을...” 최고만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천 기업탐방] 페어팩스카운티 한인 식당 ‘미가(美家)’

직원과 한 마음된 사장 꿈꾼다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무더위를 식혀줄 몸보신 음식을 찾는 한인들이 북적였던 여름의 무더위가 한 풀 꺾였다. 페어팩스카운티 중심가에 위치한 한인 식당 ‘미가(美家)’에서 선보인 전복을 넣은 삼계탕은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면서 인기 품목으로 급부상, 하루에 최고 50그릇도 팔리는 등 손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개업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지만, 정갈한 음식 솜씨로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고객에게도 그 손맛이 알려진 한인 식당 ‘미가’의 객선이(Sunny Kwak) 대표를 만나 봤다. 요즘 객 대표를 만나는 지인들은 열이면 열 “성공했다”며 칭찬이다. 식당 관련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있어 시작한 식당 일은 이제 1년 반 지났지만, 단골 손님들도 꽤 생기고 한국의 정갈한 음식 솜씨에 매료된 외국인 손님들도 전체의 30~40%를 차지할 정도다. 처음엔 가게 위치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망설였지만, 불경기에 위협을 감수하고 구입한 식당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가게를 구입하게 하셨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객 대표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인지 “늘 손님들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고 싶다”며 “재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쓰려고 하고, 반찬이나 메뉴에 있는 음식도 주방에서 조금 바쁘더라도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요리해 내놓는다.

가정적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고 가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또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목돈을 들여 약을 사다 대대적인 정기 위생관리를 빼놓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여러가지 과일과 야채를 넣어 다린 육수로 만든 육수 불고기 전문점인 ‘미가’이지만, 올 여름에는 스테미너용 고급 재료인 ‘전복’을 넣어 삼계탕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바다의 용왕이 먹는다는 ‘살아있는 전복’을 넣어 끓여 삼계탕에 있는 약간의 닭냄새가 없어지고 시원한 맛을 낸다고 한다. 사시사철 예



미가의 인기 상품 전복 삼계탕. 당기, 황기, 대추, 찹쌀, 인삼 등 건강 약재들을 우려낸 국물에 살아있는 전복을 넣어 요리한 삼계탕은 올 여름 최고 인기 상품이었다.

피타이저로 나오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도 미가의 인기 비결에서 빼놓으면 섭섭하다. 남편을 따라 이민 온

물설은 미국 땅에서 힘든 생활로 눈물 짓던 지난 날도 있었지만, 객 대표의 얼굴에는 세파에 찌든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막막한 이민 초기의 어려움은 현재 직원들의 마음을 세심히 챙기는 ‘넉넉’ 사장님의 기쁨을 제공했다. 성가대,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같은 크고 작은 교회일을 꼬박 꼬박 챙기던 그것이지만 식당 일을 시작하고 부터는 아무래도 쉽지 않다고 했다.

“아쉽죠... 그래도 주일예배만큼은 챙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늘 노력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겸손히 말하는 객 대표에게도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바로 몇년 전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전도한 가족이다. 고부 갈등이 심하던 어머니와 오빠 가족을 전도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한 것.

아들이 아파 갔도 해보고 각종 불찰을 찾아다니던 올케에게 “교회 다녀야 한다”고 권민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 후로 신장이 아픈 조카가 나왔고, 전도된 지 6개월 만에 15명을 전도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가족으로 변모했다. 오랫동안 불교를 믿던 어머니도 오빠 가족과의 화목을 위해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3번 성경을 일독하고 주야로 성경구절을 외우는 등 열심으로 회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한다.

“아직 제 믿음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손님들에게도 가족처럼 대하고 싶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인 식당 ‘미가’는 매일 오전 10시30분부

매상 오르면 직원들 나눠줄 것

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주소는 4070 Jermantown Road #5, Fairfax, VA 22030. 문의는 703-6991-3606으로 하면 된다. 권나라 기자



객선이 대표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2011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Lee University
 - ③ Oral Roberts University
6.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① Indian University
 - ② Liberty University
 - ③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alifornia 학위 · 매달학생회비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상담학 Ph. D.	신학 Ph.D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64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수시접수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 503-5330 수시접수

“기독교인들, 9.11 영웅들처럼 억압받는 이들 구해야”



9.11 테러 10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 당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민들의 구조에 나선 9.11 영웅들의 정신도 또다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같은 정신을 본받아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종교적 억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대표가 촉구했다.

미국 오픈도어즈 대표 칼 모엘러 박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

들이 있다. 그러나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는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다”며 “9.11 이후 미국이 겪은 고통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1억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박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박해의 75%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박해 중에서 테러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모엘러 박사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행동해야 한다”며 “9.11 테러 직후 수많은 소방관, 경찰관, 긴급구조원들이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딪쳐’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박해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기도와 후원이 있다. 모엘러 박사는 이 두 가지 일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기독교인들이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고통을 간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 안의 고통을 간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9.11 테러 후 10년 뉴욕 시민들의 신앙 변화는?

9.11 테러 이후 10년간 이뤄진 뉴욕 시민들의 신앙 변화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신앙은 테러 이전보다 현재 더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기록되는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바나 그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3,400여 명의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온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으레 큰 위기를 겪은 지역 주민들의 신앙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9.11 테러 직후 뉴욕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뉴욕 전역의 교회들과 다른 종교 시설들로 극심한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고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일들이 보도되곤 했다.

그러나 바나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 몇 달 만에 테러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2003년까지 이같은 경향이 지속됐다.

그러나 변화는 2004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이 때부터 현재까지 신앙의 영향이 뉴욕 시민들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테러 전과 2003년까지 31%에 불과했던 교회 출석률은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 현재까지 46%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경을 읽는 이들은 29%에서 35%로, 기도를 하는 이들은 17%에서 24%가 됐

다. 또한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이들도 20%에서 32%로 늘었으며, 반대로 교회와 접촉이 없는 이들(the unchurched)의 비율은 43%에서 34%로 줄었다.

설문 조사를 이끈 데이빗 커너먼 대표는 한편, 이같은 변화는 9.11 테러뿐 아니라 그 후에 이어졌던 월스트리트 위기와, 경제 악화 등 미국의 여러 위기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9.11 테러 직후 높아졌던 신앙에 대한 관심이 2003년까지 실질적인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위기 가운데 갖게 된 신앙심이 굳건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독교인 위기 상담 전문가인 포커스온더패밀리 페트리샤 존슨 디렉터 역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신앙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일단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더욱 강해지고 교회 활동과 신앙의 실천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현정 기자 hjson@chtoday.co.kr

美 무슬림, “미국에 크게 만족... 방향성도 낙관적”

3분의 2 이상 “이슬람 국가보다 미국이 더 좋아”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9.11 이후 반이슬람 감정으로 인한 인종차별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공동체가 미국 사회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문제 연구단체 퓨 포럼(the Pew Forum)에 의해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이슬람교도들은 미국의 현 상태에 다른 미국인들에 비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의 관습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했다.

설문을 받은 3분의 2는 미국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보다 더 좋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2001년 이래로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로 지내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4분의 1은 수상한 존재로 취급되거나,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거나, 공황의 보안 검사에 의해 추종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와 달리 전체의 37퍼센트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자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

운 수는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퓨는 4월 14일에서 6월 22일 사이에 1,033명의 미국 이슬람교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는 영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우르두 어로 진행됐다.

퓨의 수석 연구원 그렉 스미스(Greg Smith)는 조사자의 3분의 2가 이주자들이었으며, 이들은 77개국을 대표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개종자들 뿐 아니라 미국 이슬람교도 2세와 3세들을 포함한다.

2009년의 텍사스에서 일어난 Ft. Hood의 총기 사건과 최근 좌절된 테러리스트 공격에 의해 본국의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불안이 거세져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직 4퍼센트의 미국 이슬람교도들만이 그들의 공동체 내 극단주의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다고 믿고 있으며, 34퍼센트는 그들의 공동체 내에 극단주의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미국 이슬람교도들은 일반 대중 보다 미국의 전통적인 이상을 더 추구하는 편이다. 일례로, 전체 미국인의 62퍼센트가 열심히 일하면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이들은 4분의 3이 이와 같이 믿는다.

엘에이에 근거를 둔 이슬람 공공 문제 위원회(Muslim Public Affairs Council)의 대표 살람 알마라야티(Salam Al-Marayati)는 설문 조사 결과는 그의 공동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 이슬람교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뿌리를 버리지 않고서도 미국 사회와

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마라야티는 “나는 이슬람교도로서 우리가 미국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을 보며, 미국을 우리의 고향으로 여긴다.”고 했다.

주디 한 기자



미국 텍사스에 ‘자동차 극장형’ 교회 등장

장로교 목사의 파격...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대상



텍사스주에 자동차 극장형 교회가 세워져 화제다. 마스터장로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을 선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이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자동차 극장형 교회가 세워져 화제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예배는 시작된다. 예배 장소가 차 안이라는 것만 빼면, 찬양, 기도, 설교 모두 기존 교회 형식 그대로다. 파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이 같은 시

도는 마스터장로교회 담임 데이빗 레이 목사의 아이디어다.

레이 목사는 CNN 협력채 WFAA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자동차 극장형 예배를 열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나의 시도를 허락하실 것”이라며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문제는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 루카스 지역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을 빌려 드리는 이 교회는, 장로교단의 데이빗 레이 목사가 3번째로 세운 야외 교회로 “하늘 아래 성전(Sanctuary under the sky)”이라고 명명했다. 오전 9시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 후 오전 10시 30분에는 예배당 내에서 정식 예배를 드린다.

최근 주일예배를 드린 한 교인은 “대형교회보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히며 자동차 극장식 교회를 지지했다.

권나라 기자

LA 오토덴트

LA AUTODENT GRAND OPEN!



BEFORE AFTER

오토
덴트

&

바디
리페어

I 덴트란, 페인트 손상없이 찌그러진 부위를 판금, 도색없이 퍼내는 방법을 덴트라 합니다.

I 덴트의 원리

덴트의 원리는 철판의 탄성-찌그러진 철판은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작업입니다.

I 덴트의 필요성

덴트는 인접 철판면을 비갈쪽으로 정밀하게 밀어내는 복원작업으로 난이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금속판을 분해 및 탈착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원상태로 복구시켜 드립니다. 이 방법은 도색을 하지 않는 장점과 더불어 차량의 가치 하락 또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흡집제거/찌그러짐/범퍼복원/코팅
리스반납시,기분좋은가격으로~
딱! 하루만에 완벽한 복원가능

LA오토덴트에서 새차를 만들어 가세요

Tel. 323-735-3180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세라노)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4부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예배 오후 2:0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Youth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교동,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태)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교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2부 11시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교동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서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EM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00(토)
 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교동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홍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예배 오후 7:45
 점오후 12:30(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2,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정책에 자신 있어... 종교간의 마찰은 없을 것”

2일 기독교자유민주당(가칭) 창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는 기독교자유민주당의 정책과 강령,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와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전 목사는 이번 창당이 오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이뤄진 것이며, 자신이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타 종교와 마찰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들의 주요 질문과 전광훈 목사의 답변.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자유민주당 창당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왜 굳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 하는가.
 “4년 전 조용기 목사님과 故 김준곤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나라와 사회가 어려우니 기독교당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에게는 청교도영성훈련원 조직이 있고 장경동 목사에게는 대중적 영향력이 있으니 둘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 때는 성경적·정치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교계 원로들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목사가 왜 정치를 하느냐면서 욕하는 글이 인터넷에 수없이 올라갔다.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교계 원로들이 잘못된 일을 맡겼겠나 싶어 끝까지 힘껏 밀어붙였다.”

그 결과 총선에서 약 45만 표(2.59%)를 얻었다. 이는 그 당시 두 가지 큰 약조건 속에서 이룬 것이다. 첫째는 창당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선거를 치렀고, 둘째는 모 정당의 압박으로 245개 지역구 대표들의 출마를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기독교인들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봐도 좋은 것이다. 2.5%도 득표하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기에 선관위에서 해체시키는데, 통일교 가정당은 해체됐지만 기독교당은 당당히 살아남았다.”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 정당의 활동이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겠나.
 “제가 시정 앞에서 자주 애국집회를 하는

번째 계명부터는 모든 종교가 공감한다. 기독교자유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첫번째부터 네번째 계명은 강조하지 않겠다. 그 외에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두 공감하지 않겠다. 그렇게 가면 종교간 마찰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자유민주당이라는 종교적 이름 붙인 건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은 정책 이념이 더 앞선다. 대한민국에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이념에 동의하는

관위에 제출하지 않아 합당이 무효라며 저더러 당원도 아니니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지금도 그 당은 존재하고 몇몇 분들이 돌아오라고 하지만 가지 않을 것이다.”

4년 전 45만 표를 얻은 것은 누가 봐도 청교도영성훈련원 조직을 가지고 만든 표이고, 이제 5만 표만 더 만들면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기독교 정당을 위해 전

나고 묻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자유민주당’이다. 경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우선하고, 어느 사회든 정신적인 내공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다. 다 예수 믿고 술 담배만 안 해도 돈이 남는다.”

4년 전에는 순종하는 미덕 때문에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공부도 많이 했고 정치적 소신도 분명히 있다. 제가 제시한 교육법 등은 다른 정당과 비교해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다.”

기독교자유민주당 출사표 던진 전광훈 목사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것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여하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정책과 이념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당을 지지하면 된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자료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제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아니다. 최소한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려면 먼저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한 뒤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비판이야말로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45만의 지지를 받은 당당한 정당이다. 몇 년 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나라와 교회를 바로세우는 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기독교 창당을 준비해 왔다.”

-4년 전 약 45만 표의 지지를 받은 것은 다른 기독교인(현재 기독교를 표방한 정당은 3~4개나 된다), 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 하는가.

“사실 이전 부끄러운 일이다. 당시 선거가 끝난 뒤 제가 활동했던 정당은 많은 지지를 받아서 살아남았는데, 김준곤 목사님의 지시로 다른 기독교 정당과 합당선언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당 사무실에 가니 서류를 선

혀 봉사나 희생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느닷없이 기독교당을 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서서 않다. 최소한 목사라면 어느 정도의 윤리의식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남이 다 지은 집에 돈도 안 내고 입주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원로들의 명령이 아니라 저의 정치적·신앙적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총선에 나설 것이다.”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일률적 무료 분배 사회주의적 복지주의 배격 ▲초, 중, 고등, 대학교 5.3.4.4. 학제 교육 도입 ▲대학 졸업자에게 창업자금 무상 대여 방안 강구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교체 할당제 도입 ▲미국의 동맹관계 재점검 보완 ▲수쿠르법, 동성연애법, 자연공원법 적극 지지 및 반대 등이다. 수쿠르법의 경우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와 사회를 망치는 법이다. 그래서 영국은 다 갖아버렸다.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방어할 것이다.

향락문화도 너무 심각하다. 기본적 삶의 행복 위한 향락이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양주소비량이 세계 1위다. 이것만 줄여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떻게 양주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목사님에 대한 비난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제가 직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하려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한 말들이 불의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린다. 저는 풍자적 설교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정해진 대상과 공간에서 오랜 교감을 나눈 이들을 상대로 말을 하다보면, 그 상황을 모르는 이들이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를 그대로 중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논란이 있을 뒤 제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 중에 제 말을 듣고 오해한 분들이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했지만 하나도 없었다.”

-기독교당 단일화 계획은 있는가. 또 어떻게 지역구 후보들을 선발할 것인가.

“단일화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교계 어르신들이 나서주셔야 한다. 후보는 먼저 245개 지역구 출마 지원자를 받은 뒤, 내년 4월까지 기독교 정치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거쳐, 국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훌륭한 후보들을 선발하려 한다.”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지금은 변화산에서 내려갈 것을 결단할 때다”

예장 합동 설립 1백주년 기념 총회세계선교대회(GMS) 2011 세계선교대회가 2일 오전 11시 열린 파송예배를 끝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총회선교, 세계교회와 함께’를 주제로 안산동산교회(담임 김인중 목사)에서 열린 이번 세계선교대회에는 전세계 100개국에 파송된 국내 선교사 3백여명을 비롯해 국내외 관계자 4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호 준비위원장(동산교회)이 인도한 파송예배에서는 이기창 부총회장(전주북문교회)이 설교했다. 이기창 목사는 ‘성령과 선교(행 1:4-8)’를 제목으로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선교는 하나님의 사명이자 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하고, 그러므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므로 그 수고



이기창 부총회장이 파송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를 알아드려야 하고, 우리는 충성 된 종이 돼서 그분의 갈증을 풀어

세계선교대회, 4박 5일간 일정 마무리

드려야 한다”고 권면했다. 선교대회 장소를 제공한 김인중 목사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축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달려가면 그곳에서 많은 열매 맺히게 될 줄 믿는다”며 “먼 곳까지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GMS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후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하귀호 이사장은 낭독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계 최대 장로교단으로 성장한 우리 교단의 미래를 계획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고 선언문 취지를 밝혔다.

예배에 앞선 ‘축제와 협력의 장’에서 말씀을 전한 옥성석 목사(충정교회)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는 그곳이 무척 좋다고 생각해서 현실에 안주하려 했지만, ‘일어나 산 아래로 내려왔다’며 “그런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변함없이 산 아래 있는 이들과 동고동락했는데, 그가 가야할 곳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며칠간 꿈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여기를 떠나는 것이 꿈이자 비전이 되어야 하고, 이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배는 안기영 목사의 축도와 하귀호 대회장(GMS 이사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이후에는 GMS 이사회 총회가 개최됐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까?

자동차의 모든 문제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워싱턴 바디샵 으로 연락하세요.

30년 경력으로 정상가의 50%만 받습니다.



1800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워싱턴길 버몬과 노르만디 사이)

323.732.9693

‘목사님의 운세’ ? 교회언론회, 포털사에 시정 요청

인물 소개의 ‘별자리’와 ‘띠’가 운세와 연결

인물정보 프로필 수정요청 내 홈페이지



이승만 건 대통령
출생-사망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 - 1965년 7월 19일
성별 남성
별자리 양자리
띠 달지띠
가족 배우자 프란체스카
종교 기독교
관련정보 역대 한국대통령

인물정보 프로필 수정요청 내 홈페이지



한경직 목사
출생-사망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 - 2000년 4월 19일
성별 남성
별자리 염소자리
띠 호랑이띠

한 포털사이드의 인물정보, 별자리와 띠를 더블클릭하면 검색하기가 나오고, 이를 다시 클릭하면 운세로 연결된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의 “인물정보”에 보면 간략한 약력 소개와 함께 ‘띠’와 ‘별자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런 ‘띠’와 ‘별자리’는 ‘운세’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한국교회언론회가 지적했다.

현재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는 <네이버>와 <다음>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음은 인물을 검색하면, ‘띠’와 ‘별자리’가 나오고 이를 ‘더블 클릭’하면 ‘검색하기’가 나온다. 이를 다시 클릭하면 ‘띠별 운세’와 ‘별자리 운세’와 연결되게 되어 있다. 네이버는 인물정보에서 하단에 “인물정보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띠’와 ‘별자리’가 나오고 이것도 ‘운세’ 정보로 링크되어 있다.

교회언론회는 “이렇게 중요 인물의 약력을 운세와 연결하는 것은 목회자와 심지어 사망한 인물에 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있어, 고인에 대한 심각한 결례와, 성경에서 미신과 우상숭배를 엄하게 금하고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모욕이 되고 있다”며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점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신 18:10-11), ‘네가 좇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너에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신 18:14)고 말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달 31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 <다음>에서는 필요시 본인이 요청하면 삭제해 주겠다는 것과, 이를 한국교회언론회를 통해서 요청해 오면 일괄적으로 삭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

교회언론회는 이에 “한국 기독교계의 지도자 중 인터넷 포털사의 ‘인물’에 소개된 분이 있으면, 본회에 신고해 주기 바람”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아직 <네이버>에서는 답변이 없으나, 기독교계의 단호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개교회엔 손해지만...”



2일 기자회견을 가진 미래목회포럼 관계자들. 좌측부터 순서대로 이랜드 시목 박계문 목사, 전주서문교회 김승연 목사, 성은교회 김인환 목사,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 오산평화교회 최석원 목사, 오산장로교회 박병철 목사

구제역과 폭우, 게다가 얽힌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태풍 피해가 지..... 그 어느 때보다 농·어촌 시골교회들이 피해한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래목회포럼(대표회장 김인환 목사)이 올 추석에도 변함없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벌인다.

“농·어촌 시골교회, 개척교회에 생기를! 격려를!”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 캠페인은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제5차로 진행된다. 한국교회 중 10%에 해당하는 1백명 이상 중·대형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본 교회에 출석하기보다 시골 농·어촌 고향교회

목사(전주 서문교회)는 “이 운동을 시작하고부터는 명절이 다가오면 주보에 캠페인에 대한 광고를 한다”며 “참여했던 교인들 모두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운동이 더욱 파급되고 보편화되면 한다”고 했다.

이상대 목사는 “한국교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공생해야 하고, 그러려면 큰교회들이 작은교회들을 도와줘야 한다”며 “예전에는 명절에도 출석 교인이 10% 정도밖에 줄지 않았는데, 이 운동을 하고나서부터는 50% 가까이 줄어서 개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미래목회포럼, 추석 맞아 한국교회 공생 위한 제안

와 주변 개척교회를 방문해 일선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운동이다. 해당 기간에는 본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기를 강요하기보다 미리 주보 광고를 통해 차량 운행 중 공예배도 농·어촌 고향교회나 주변 개척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릴 것을 권한다.

이 캠페인은 이미 지난 네 차례에 걸쳐 1천여 교회가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그간 진행했던 운동에 대한 평가와 보고도 이어졌다.

김인환 목사는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교회들에 대한 정책이나 배려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 운동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길고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의 제안자인 김승연 김진영 기자

북인련 “탈북자들, 영사관에서 3년째 감금생활”

기다리다 지쳐 자살 기도까지... 인권위에 제소

북인권단체인연합회(이하 북인련)에서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지 않는 외교통상부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동포 가족 증언 및 단체대표 발언, 성명서 낭독, 진정서 접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만, 외교부는 이들을 장기간 방치하고 안전한 조처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탈북자들의 중국 내 외교공관 체류생활이 너무 끔찍하고 지독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4월 “중국 내 한국영사관 4곳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는 30명이 넘지만 4년을 대기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다림에 지쳐 자살을

기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인련은 “지난 2007년과 2009년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에서 계속 기각했다”며 “외교관들의 직무유기를 덮은 채 탈북자를 살려내는 구호활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직무유기 사례들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전했다.

이대웅 기자

이영훈 목사 “교회 두 쪽 난다는 보도, 사실과 무관”



장로수련회 강의에서 “불협화음 나온 데 대해 회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2일 “교회가 두 쪽 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목사는 강연 태백에서 열린 제9회 장로수련회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강의에서 “다만 일부 불협화음이 나온 데 대해 교회 지도자로서 잘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밝혔

다. 이목사는 “교회 내 고소고발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도자인 내가 교회를 잘못 섬겨서 그런 것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자세로 철저히 회개하고 있다”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고 죽으면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은 사랑으

로 하나가 돼야 하며 절대 나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하든 분열과 다툼, 갈등을 부추기게 돼 있다”며 “제직을 세우는 것은 성도의 영적 리더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라는 뜻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끌어안고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원장 정서영 목사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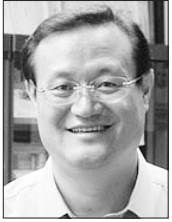
-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정우성 칼럼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을 만드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정우성
남가주광영교회 목사

러시아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믿음으로 땅을 밟으며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를 탐방했습니다. 후방에서 중보하는 기도가 저희들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여러분들과 맡긴 책임들을 완전하게 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방에서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자본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이때에 복음전파가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동석선교

사님 부부와 최광호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단기 선교팀은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를 탐방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니라>(사 43:18-21)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해도 사막에서 물이 없어 오아시스를 찾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비방거리들을 영광과 칭송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들을 영생의 자식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임

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임니다. 자녀들이 잘못 가면 부모들이 그 책임을 지고 부모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함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임니다.

저는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시는 러시아를 보았습니다. 복음의 물결이 파도치는 것처럼 강하게 불어 올 것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우뚝 세워져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의 생명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능 하다면 , 또 할 수 만 있다면 단기선교에 많이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말이 필요 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세계선교를 꿈꾸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영길 칼럼

묻어둔 한 달란트



김영길
감사한교회 목사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세종들을 불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금액은 주인의 전체 재산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겼던 자기 재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맡았던 자들은 모두 감절로 그 재산을 늘린 수고에 대하여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둔 일 때문에 책망을 듣고 그 재산도 빼앗기게 됩니다.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왜 그 돈을 묻어 두었는지에 관해서 현란한 말로 변명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주인에 대한 완곡한 비난입니다.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무서운 주인의 돈을 내가 함부로 잘못 다루다가 흑사라도 손에 보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제 있는 그대로 돌려준 것만 해도 잘한 일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일하기 싫었다면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를 증식시켰어야 했다 고 책망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백만원에 해당하는 큰돈입니다. 주인이 이 돈을 맡길 때에는 당연히 더 많은 재산으

로 증식시켜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종들을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처음의 두 종들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했지만 마지막 종은 외면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집을 비운 오랜 기간에 무의 도식했습니다. 종이 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요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화도 없었고 발전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들에 대하여 무책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책망을 들을 때에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하고 마음으로 반발했습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존재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기회들과 재료들과 관계들과 가능성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살았다는 말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묻어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조주호 칼럼

[신앙논단]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조주호
리폼드대학교 대학원 총장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모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중심의 유일신 신앙관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의로운 섬김의 신앙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의미 하는 것 같습니다.

타리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그 곳을 탈출시킬 것인가를 생각 하게 되겠지요. 내게 소유된 명분과 직분 그리고 많은 소유물들이 존재의 의미에서 소유의 가치를 향해 이웃으로 펼쳐져 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새로운 길 열어주는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행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면 사랑을 하기위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삶의 후원자로 믿음을 삶의 재산으로 기도를 삶의 방법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부여한 직분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허락하신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맡긴 직무에 게으른 사람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바라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최소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어려울때 우리 목사님과 교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리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많은 시간을 거리와 모임에 빼앗기고 실상 먼저 할 일을 뒤로 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사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을 느끼는 사람과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보냄받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서있는 곳에서는 열정과 희생으로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의로운 삶을 지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군을 향해 앞에서 가로막힌 장애물을 열어주기 위해 앞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일어나 이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삶의 길이 막히고 넘실대는 흥해 바다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실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안에 스스로를 낮추고 간구와 도구의 소리를 모아 힘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의 울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엄격한 사명과 직무에 대한 행동을 해야 하니까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의 울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초진 무료! T213-380-0853

고태형 칼럼

흥미로운 광경



고 태 형
선한목자장로교회 목사

최근에 국내에서 비행기 여행을 하다가 비행장 두 군데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비행장엔 공중전화 박스의 전화기를 모두 빼고 뚜껑을 덮어 씌어 놓았습니다. 다른 비행장엔 공중전화 박스는 있으나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텅 비어 있는 모습이었습니...

위해서 앞사람이 전화 끊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서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25년 전 일도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 신학교 기숙사에 살 때 공중전화기 기숙사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중전화에도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공중전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연락을 위해 한국의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기숙사 복도에 있는 그 공중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숙사 같은 층에 사는 미국 학생들이 공중전화를 통해 저희에게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저희 방에 와서 노크를 하고 전화 왔다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와서 이렇게 공중전화를 우리 전화(?)로 사용하면서 1년 반 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성경공부 지도를 하던 한 유학생이 어느 날 저희 기숙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사는 데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웬일로 저희 집엔

다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참석해야 할 모임을 알리기 위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유학생이기에 절박하며 산다고 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을 끼치는 것이 되어 바로 전화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공항에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막아놓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저마다 스마트폰에다가, 아이 패드로 무장을 하고 어디에서나 음성으로, 문자 메시지로, 이메일로, 인터넷을 통해서 24/7 온 세상과 소통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시간을 다투며 인터넷으로 서로 연락을 하며 컴퓨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필자가 탄 비행기에 비행 중에 인터넷이 가능한 비행기라는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

10분 정도를 주고 사면 비행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던지요. 삼만 피트 높이라는 공중에서 인터넷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작업을 마친 후 그 위력에 감탄을 하며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언제 어디서나 서로 연락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퍼져나가며 전화비에 데이터 수신비가 추가로 더 얹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살기 위해 그만한 댓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와 같은 것과 비교될 수 없이 훨씬 더 엄청나게 좋고 유익한 능력의 의사소통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라는 장비입니다. 현대의 통신 장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고

밧게 만듭니다.

핸드폰, 아이폰, 스마트 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의 도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르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락할 수 있도록 그 댓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만 하면 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응답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경험되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24/7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어느 통신장비보다 더 많이, 아니 항상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인수 칼럼

서경훈 칼럼

너무 깨끗해서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조 인 수
씨나사이드교회 목사

어릴 적 한국에서의 삶의 질은 한마디로 불결했습니다. 단지 선교나 비전트립을 가서 후진국들의 삶을 보면 옛날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불결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이 신기합니다. 겨울에는 늘 감기가 떠나질 않았지만, 친구들과 가운데 어떤 친구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기도 했지만, 그런 불결한 환경에서 이만큼 자란 것을 보면 인간은 불결하면 불결한대로 환경에 적응하도록 창조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한다면 오늘의 환경은 너무나 청결합니다. 오히려 너무 청결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청결을 따집니다.

마치 모두가 무균실에서 살기를 원하는 듯 합니다. 무균실은 면역력이 전혀 없는 중환자에게 일시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곳인데 현대인들은 자기 집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율가닉이 아니면 안먹으려 합니다. 모든 먹거리는 원산지를 따지고 양질의 먹거리만을 먹으려고 고집합니다. 물도 좋은 물만 찾아 마십니다. 좋은 물이 아니면 H2O만 들어있는 물(교회물)이라도 먹으려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이 자신도 모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불결해도 안되지만 너무 깨끗한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주님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자고 했습니...



서 경 훈
함께가는교회 목사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2천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놓고 참 많이 힘들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 생각했던 것이 '위대한 사람'(聖人) 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네 사람을 선정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즉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대우합니다. 그 정도 대우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써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칭찬을 듣는다면 당연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는

정말 성인의 칭호를 받을 만하다고 하겠어요? 4대 성인의 칭호를 받는 공자님이? 당연히 자기는 성인의 칭호를 받을 만하다고 하겠어요? 다들 겸손히 사양하겠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네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대우하면서 우리가 공자님을 대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 정도로 존경하고 그 뜻을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C. S. Lewis가 분류했듯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사실 이 두 경우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예수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거짓말을 했든지, 그러면 예수는 희대의 사기꾼이고요, 혹시 본인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예수는 정신병자일 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주장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오직 이 선택만이 남습니다. 내가 거부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내가 취할 행동은 돌을 던져 그에게 던지는 것이지, 그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어쭙해도 않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인 사람에게 4대 성인이 뭘 할입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 밤새 헛수고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후 예수의 발 아래 구부러졌습니다. 자기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오직 하나, 그분 앞에 무릎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나서 취했던 행동도 동일합니다. (요한 9:38)

예수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돌을 집어던지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쭙해도 않게 하나님을 성인이라고, 그것도 네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런 웃기는 코미디는 집어 치워야 합니다.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우리가 취할 행동은 이 둘밖에 없습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4월 29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숙성과정 학생모집 (악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만자, 재취업 기술교육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해드립니다.

Tel. 310-756-9511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 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삼 (바베류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일보 애독자 특별할인 -

- 이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 마켓용 Gondolas
-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질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금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소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였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뽕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나무 뿌리로 지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싱크대, 욕조, 변기 등
노후된 파이프를 등 파이프 교체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각종 Faucets, 디스포질,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앵콜!

진주 전문업체 고베펄이 엘에이, 글렌데일, 부에나파크에서 펼치는

앵콜!

지상최대 진주보석쇼

장기불황타개!!! 긴급제안3가지 진주보석비드 무조건 80% OFF



reg. \$499

\$99

진주 비드 목걸이
(7mm - 7.5mm)

reg. \$1499

\$259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
(7mm - 7.5mm)

reg. \$1599

\$299

진주 비드 목걸이
(8mm - 8.5mm)

앵콜!

앵콜!

BIG3 스페셜 천연진주 비드 특가품목



▲ 2011년 신상품
서울강남세공 장식 두줄목걸이

2011년 신제품 진주보석 최고 80% 세일 "진주보석 신제품등 3500여점 전시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3천 5백여점 전시 특가판매



▲ 행운과 부부금슬을 좋게 한다는
바다의 보석 홍산호



귀족들이 즐겨했고 사모님들이 사랑하는

사파이어와 루비, 에메랄드 등
유색 보석 50%에서 70%까지 특별 세일
"유색보석도 고베펄이 만들면 다릅니다"



Discover, MasterCard, VISA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행사 특성상 특전 인기 품목은 품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사 장소에서는 제품의 수리 및 A/S를 하지 않습니다. 수리 및 A/S요청은 고베펄 본사로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 도매 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도매관련문의는 고베펄 도매사업부
(본 광고 참조)문의 제주시길 바랍니다.



Kobe Pearl LAS VEGAS 고베펄 진주 보석쇼 행사 일정 (kobepearl.com 블로그참조)

안내전화 213.703.5187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6일 (화)부터 7 (수)까지, 2일간
장소: 로텍스 호텔 Rotex Hotel (그래머시 와 올림픽)
2층 뱅킷룸 Banquet Room (2nd Leve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글렌데일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8일 (목)부터 9 (금)까지, 2일간
장소: 힐튼 호텔 Hilton Hotel (한국마켓 맞은편)
지하 몬트로스 룸 Montrose Room (Lowel Level)
100 West Glenoaks Boulevard, Glendale, CA. 91202

[부에나파크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10일 (토)부터 1일간
장소: 홀리데이-인 Holiday Inn - Buena Park
1층 가든 1룸 Garden 1 Room (1st Level)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Higher Calling: 2

더 높은 부르심

제4차

미주한인청년학생선교대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실
 것이며(사55:6).
 살리실 것이며(아5:4),
 구하는 것을 찾게해 주실것입니다 (마7:7)
 청년들이여!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십시오.
 “더 높은 부르심:2”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손인식목사
베델한인교회

작년 샌디에고 GKYM 대회에 참가한 3천명의 2세 젊은이들을 보는 순간, 미래를 보는 눈이 확 열렸습니다. 여호수아 없는 모세는 끝장난 것이고, 2세없는 1세들의 교회는 껌질뿐입니다. 올해 GKYM대회는 5000명이 몰려올 것입니다!



임현수목사
토론토큰빛교회

2011 GKYM대회는 마지막 세대에 세계청년 선교 폭발의 핵이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이런 부흥의 중심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에 한번 오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바랍니다.



-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5000명
등록 : 당일등록없음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Early Bird : 11월 7일까지 \$160 (USD)
 (단체등록시 목회자 할인혜택)
 1차 : 11월 30일까지 \$180 (USD)
 2차 : 12월 11일까지 \$200 (USD)
 3차 : 12월 20일까지 \$240 (USD)
등록방법 : 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Dave Gibbons
Newsong Church



Mike MacIntosh
Horizon Christian Fellowship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Francis Chan
Founder of Cornerstone Church



Yongkyu Lee
Missionary to Mongolia



Chanhoh Ahn
Missionary to Kenya



Yonghee Lee
Esther Prayer Movement



Cheolho Han
Mission Korea Partners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2011@gmail.com

GKYM Vision 참가교회 : Abundant Life / AKPC / ANC / Bakersfield / Bill Graham Center / Bridge Community Church / BSBC / Capitola Central / CCCC / Chinese Christian Church / Choong Hyun Mission / Choong Shin Church / Church Everyday / Church of Dreambuild / Church of Joy / Church of Philippi / Church of Southland / CRM / Disciple Church / El Centro Korean / ESPC / Fairhaven Bible Chapel / FHC / First Korean Baptist / G.C.J. / GFBC / GMC / God's Church / Grace Church / Gracious Ark Church / Granada Hills Church / Hae Orum / Hanwoory Church / Harvest Church / Harvest rock Church / Hawaii Hope Baptist / Hebron Church / Highland Cornerstone / Hillcrest CRC / Hillside of LACPC / Holy / Immanuel Church / Irvine Onnuri Church / Irvine Open Church / JGM / JHOUSE / Joy Center / Kingdom Harvest / KUMCSD / LA Hanmi Church / LA Jesus Grace / Laguna Hills KUMC / LANGC / LAODC / LA남서울 은혜교회 / Life Spring / CMACUHK / Living Water / Livingstones Church / LJGC / LLCC / LMUMC / Lord's Light Church / Lubbok Baptist, Kairos / Mannam Presbyterian / Mi Ju One Way Church / Nasung Wesleyan / New Life Mission / New Life Oasis Church / New Life Vision Church / NSD of KMC / OC YoungNak Church / Open Heaven Church / Peniel Church / Podowon Baptist Church / Rock Harbor / Salvation Army / SD Hope Church / SD Sarang Church / Seoul Baptist Church / SUITA Church / Sungkwang Church / TGSC / Tian Yin Church / TKPC / Tucson True Light Church / TVPC / UMC / UPC, Cerritos Baptist / West LA은누리교회 / Westminster Baptist / Wonderful Church / World Mission / World Saints Church / WPCA / 감브리 믿음교회 / 감브리교회 / 감브리새생명교회 / 과테말라 한인교회 / 나성 서남교회 / 남가주 / 남가주 꿈이 있는교회 / 남가주동성교회 / 드림교회 / 미주평안교회 / 밀알장로교회 / 벨리 연합감리교회 / 뽕나무 빌라델비아교회 / 베이커스필드 한인 침례교회 / 배론루지 한인 침례교회 / 사랑의 교회 / 새누리교회 / 새문안교회 / 새순교회 / 새한교회 / 샌디에고 주님의교회 / 샌디에고한빛교회 / 서부장로교회 / 세계아가페 선교교회 / 세인트루이스 한인 소망교회 / 아름다운교회 / 아름다운동성교회 / 알함브라교회 / 연합감리교회 / 메살채플(Bethel Korean Church) / 오렌지 한인교회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 은누리 Sunland / 은누리 베이커스필드 / 주리교회 / 은성교회 / 은혜의 빛 장로교회 / 직은자 교회 / 조선족 선교교회 / 주사랑 / 주사랑교회 / 은빛교회 / 부산 참빛교회 /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 트라이밸리 한인장로교회 / 평화교회 / 피닉스 장로교회 / 하나교회 / 하늘샘교회 /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 / 한사랑교회 / 호산나

주관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 KCCC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GAP(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 남가주목사회 /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 흰돌선교회 /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 CGNTV / CTS / KCMUSA
 한국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미주크리스찬신문 / 크리스찬뉴스워크 / 크리스찬투데이 / 기독교일보



**HIGH
ER
CALLING 2**
 GKYM VISION 2011



www.gkymwest.org